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송도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조선인민에게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일 수 있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성과는 김정은 위원장동지와 조선인민의 지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습근평동지가 김정은동지와

이룩하신 공동의 합의를 대단히 중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두당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의도를 만들어 문화예술무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조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의 공연성과를 다시한번 축하하시면서 관료있는 예술단을 평양에 보내준 습근평동지에게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중조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

진 혁명적단결과 혈연적뉴대를 힘있게 파시하고 조중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는데 이바지한 중국예술단의 평양방문공연은 조중친선관계 발전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로 장식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희세의 천출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연구보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한 생각》(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를 대양절에 즈음하여 도이쾰란드 출판사 아차위미디어프린트출판사에서 3월 28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여져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대양절로 경축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을 현생도록 신뢰하시였으며 인민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명도하시였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어머니, 영원한 주석으로 경모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를

대양절에 즈음하여 알제리 라피자르 마르살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3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조선인민의 뜻깊은 명필인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대양절에 즈음하여 마자르, 슬로베니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최고로작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오스트리아, 베르코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이시다》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목포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자르로동당, 대양절경축 마자르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향일의 형전인리 불 해치시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인들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투쟁적인 당건설사상과 비공유 제시하시오 조진로동당을 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정경연구소 책임자와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비공의 영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

##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토론회가 대양절에 즈음하여 인디아, 라이, 도이쾰란드, 벨라루스, 프랑스, 에티오피아에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0대의 어르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선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오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에 대하여

어 격찬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적사색들에 대해 언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이념위원을 최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주석의 인민사랑의 헌신적 생애와 업적을 깊이 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은 그이를 영원한 대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면서 대양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김일성주석의 념원대로 조선인민이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벨라루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 조 책임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조선 혁명뿐 아니라 세계사주위업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그이께서는 주체의 대양으로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정치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이신다고 전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대흥단벌에서 연백벌까지

조국의 통일전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적노력의 길을 걸고계신 위대한 수령님.

은 나라 방방곡곡에 새겨진 그의 불멸의 자취자취를 되새겨볼 때면 사회주의대지에 어찌 있는 위대한 어머니의 거룩한 명도의 자취가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사상은 만대에 길이 빛날 영광과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역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입니다.》

어머이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헌신적의 한평생이였다.

인물수였다. 이 나라 복단의 대흥단벌로부터 분계연선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대지의 그 어디에나 중요한 농사작황을 인양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풀이시어 이어나신 헌신의 자취자취를.

주제 43(1954)년 7월의 꽃은비비리던 날도 그 하얀은 날들중 하루였다.

진장김을 해치시며 찾아오신

배두대지에 몸소 삼을 막아보시고 이만하면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수 있다고, 우리는 벌써 함입혁명투쟁을 할 때에 조국을 해방하면 배두대지대의 넓은 등반에 농장을 크게 조직하고 김자농사를 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5호농장농장을 없앨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활히 밝혀주시어 위대한 수령님.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시 불빛이완전한 4월의 대지에 뜨겁게 매어리지는듯했다.

우리 수령님의 친리해안의 선전지명과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중요한 대지로 전변된 곳이 어찌 대흥단벌뿐이랴.

첫하의 나날 농업협동조합의 첫 씨앗이 뿌려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길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한 열령이며 깊은 산골에 자리잡고있는 최양군 로진협동농장, 생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태어난 강사구역 청산협동농장, 우리나라의 북창지대인 연백벌, 지난해 땅이 적막하고 불이 발라왔도없는 땅으로 비일발만 미루듯 등 우리 수령님께서 찾오셨은 협동농장과 조진밭은 그 없미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주 하신 교시가 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짧은 글 사회주의이다. 알곡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이렇듯 농업발전이 커다란 신행을 기울이신 어머이수령님께서는 비내리는 이른 새벽에도, 눈오는 길은 밤에도 쉬임없이 이렇마다, 최북마라도 불면불류의 헌신의 자취를 새기고 또 새기시였다.

그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께서 농작물을 손수 카구신 경험도 들려주시면서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농업생산을 집약화하고 철두철미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알곡소출을 부단히 높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정령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경리부문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찾으신 이 나라의 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의 협동농장과 만나주시는 농업근로자들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마지막 헌신지도단위가 농장이였다. 그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실을 놓고도 수령님께서 한평생 농업부문을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임정호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우 의 탐 을 찾 았 다

【평양 4월 16일 밤 조선중앙통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16일 우의탐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정근동지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중국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우의탐에 송도동지와 리진군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당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적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함기원조보가위국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을 추모하여 무상하였다.

이어 그들은 우의탐을 돌아보았다.

송도동지는 감상록에 《중조친선은 영원하리라》라는 글을 남기였다.

